
박목월 서정시의 김연준 예술가곡화 연구 - 문화융합의 원리를 중심으로 -

송 화(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사과정)
김용범(교신저자,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I. 서론

본 연구는 작곡가 백남 김연준의 가곡으로 수용된 목월 박영종의 시문학에 대한 연구이다.

박목월은 1939년 9월 『문장』지에 <산그늘>을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데뷔, 향토적 서정에 민요적 율조가 가미된 초기 시1부터 현실에 대한 관심과 인간의 운명이나 사물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 가족이나 생활 주변에서 시의 소재를 형상화하여 한국 시문학사의 독보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인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 박목월 시의 특성은 동심의 눈으로 발견한 순수성, 한국어로 표현하는 향토적 서정성², 기독교적 성찰을 바탕으로 한 진지성으로 정리, 요약된다. 이러한 박목월의 시들이 작곡가 백남 김연준과의 만남을 통해 ‘예술가곡’이라는 독창적이며 새로운 양상의 융합예술 장르로 드러난다.

기존의 음악용어로서 ‘예술가곡’은 이전의 ‘낭만적 가곡’과 달리, 작곡가가 선택한 시의 전체적 분위기를 음악적으로 전개시킨다는 점에서 시의 해석가로 위치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러한 예술가곡이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프란츠 페테르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에 이르러서이

-
- 1 1946년 조지훈, 박두진 등과 낸 3인 시집 『청록집』은 시인과 자연과의 교감에서 얻은 향토적 서정이 보편적인 향수와 미감을 불러왔으며 해방 시단에 큰 수확으로 남아 있다.
 - 2 박목월 시의 향토성을 제일 먼저 논한 것은 김동리이다. 그는 1952년 청춘사에서 발간한 『문학과 인간』에서 “박목월이 발견하는 자연의 육체는 향토성에서 온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광구, “박목월 시의 향토성,” 『한민족문화연구』 (1999), 33에서 재인용.

며, 1814년 슈베르트의 <실짓는 그레첸>(Gretchen am Spinnrade)를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용어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본다.³

음악사적으로 예술가곡은 여가를 즐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가곡 장르를 독자적인 예술장르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1790년대 독일에서, 음악을 단순히 시를 쉽게 이해하는 보조수단에 국한시킨 이전의 가곡미학을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경향들이 형성되면서 시작됐다.⁴ 예술가곡은 그 속성상 시로 대표되는 운문의 결합을 요구하며, 시문학과 음악의 관계는 상보적(相補的) 연계 속에서 하나의 조화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음악용어로서도 ‘예술가곡’에서도 시와 음악의 연계성을 떼어놓기는 어렵지만 본고에서는 이 같은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가하여 ‘예술가곡’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기로 한다. 즉 ‘비상업적 목적을 지닌 순수창작물로서의 문학(시)과 작곡에 있어 전작(全作: 기존에 발표된 바 없는) 작품으로 작사와 작곡이 동일한 한 작품의 창작을 위하여 공동으로 창작한 작품’이라는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이는 김연준 가곡의 한 특징이며 김연준과 박목월의 문학과 음악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백남 김연준은 한국 가곡에서 독보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작곡가이다. 비교적 뒤늦게 작곡활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30년 동안 3,600여 곡이라는 방대한 양의 작품을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상당수의 작품이 대중적 호응 속에 애창되고 있다. 김연준 작품의 특징은 반복적으로 드러난 음악 형식⁵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낭만주의적 상징성, <청산에 살리라>와 같은 대표곡에서 보여주는 자연친화적 서정성,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라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삶의 철학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박목월과 김연준의 창작 세계를 조망하고, 두 예술가가 합작하여 문화융합으로 탄생시킨 ‘예술가곡’의 연계성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두 예술가의 특징인 자연친화적 서정성은 인간의 본성과 닮아 있다는 점에서 가곡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여러 작가들이 추구해온 테마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것의 자연발생적 결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융합될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의 공동 작업에 주목한다.

3 김용환, “한국 최초의 예술가곡’에 관한 소고,” 『음악과 민족』 20 (2000), 272-276.

4 이흥경, “시와 음악의 이중주,” 『독일어문학』 48 (2010), 86.

5 권송택, “김연준 가곡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기법,” 『김연준 가곡의 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저자는 김연준의 가곡에 나타나는 선율적, 화성적, 형식적 특징들을 분석해 원칙에서 벗어난 독특한 선율진행을 비롯하여 대담한 선율의 도약, 이로부터 파생되는 동기적 발전과 감작스러운 반전 효과, 자유로운 조성형식, 마지막 종지의 지연 효과 등이 ‘김연준 만의 색깔’을 드러낸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그동안 작곡가 김연준과 시인 박목월에 관한 연구는 음악과 문학이라는 별개의 장르에서 따로따로 진행돼왔다. 김연준의 가곡에 대한 연구는 음악적 특징과 분석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었고, 박목월의 시에 관한 연구는 문학적 특징과 정서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이러한 연구는 두 예술가의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논의의 바탕이 됐다.

그러나 분명 박목월의 시는 김연준 가곡과 만나 문학과 음악이라는 서로 다른 예술 장르가 이룬 문화융합의 한 유형으로 새로이 탄생, 예술가곡이란 독창적 장르를 개척하였으며 이는 문학적 시각으로만, 또는 음악적 시각으로만 규명되기는 탐색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문화융합은 최근 문화콘텐츠학에서 활용되는 창작원리이다. 현장에서의 다양한 활용과 학문적 분석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용어로서,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닌 문화들이 결합함으로써 기존의 것을 넘어서 또 다른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통합과는 다른 개념이며 일종의 화학적인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문을 통해서 기존의 김연준 가곡과 박목월 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예술가곡'의 장르적 속성과 문화융합 측면에서 본 박목월 시의 유형과 시와 김연준 음악이 이뤄낸 예술영역의 확장성과 시너지 및 소통의 방법을 살펴본다.

II. 본론

1. 작곡가 백남 김연준과 시인 목월 박영종의 음악과 문학의 특성

1) 김연준 가곡의 특성

백남 김연준은 1914년 함경북도 명천에서 태어나 2008년 타계할 때까지 한국 가곡사에서 독보적 위상을 차지하는 작곡가이다. 김연준의 음악가로서의 삶은 작곡이 아닌 성악에서 시작됐다. 1938년, 한국 최초의 바리톤 독창회를 열어 성악가로 등단했지만, 졸업 후 교육가로서의 길을 선택했고, 30여 년 동안 육영사업에 헌신했다. 1970년대 들어서 비로소 작곡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 이후 30여 년 동안 약 3,600여 곡의 가곡을 창작해내는 놀라운 열정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창작 결과는 작품집으로 『김연준 가곡 1600곡집』과 『성가곡집』 등 총 16집으로 집약되며, 그 중에서도 <청산에 살리라>, <그대여 내게로>, <초롱꽃> 등은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져 애창되고 있는 곡들이다.

이러한 김연준을 가리켜 장건실은 “대중이 외면하는 고급예술가곡의 작곡가라고 보기보다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대중적 예술가곡’의 작곡가에 가깝다.”⁶

고 평한 바 있다. 김연준도 자신의 음악관을 “인생의 근원적인 속성”을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전달하고, 듣는 이로 하여금 그것을 “깊이 인식하게 하여 삶을 좀 더 보람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⁷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김연준 가곡의 특성을 살펴보자.

① 김연준 가곡의 음악 형식적 특성과 낭만주의적 상징성

앞서 김연준 가곡은 ‘대중적 예술가곡’으로서 누구나 쉽게 다가가는 데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특성은 음악 형식으로도 나타나는데, 권송택은 특징적인 선율진행,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화음, 제5음에서의 마지막 종지, 특징적인 악절 구조, 장단조 혼용 등을 꼽았다.⁸

우선 김연준의 가곡에서는 노래의 마지막 종지음에 으뜸음 대신 제5음이 오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가곡 <신 앞에 무릎 꿇고>(박목월 시), <구름>(이은상 시) 등에서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음의 배치는 명확한 종지의 느낌을 주지 않는다. 권송택은 이를 가리켜 험한 폭우 속 같은 인생을 담담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작곡가의 인생관이 엿보이는 곡이라고 해석,⁹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작곡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제5음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 종지에서 으뜸음이나 으뜸화음에서의 종지를 피하는 경우는 시의 내용에 따라 여운을 남겨야 할 때, 마지막에서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 때 등이다. 이러한 예는 김연준의 현대가곡에서 보다 흔하게 발견되는데, 이는 시의 내용에 따라 전체적으로 모호한 조성으로 곡을 이끌어 나갈 때 조성이 명확한 종지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¹⁰

이 같은 음악 형식적 특징은 시를 가사로 썼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김연준은 시를 가사로 활용할 경우, 시의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음악적 기법들을 활용했는데,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6 장견실, “김연준의 연가곡을 통해 본 그의 음악세계,” 『김연준 가곡의 연구』(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116.

7 김연준, 『백남 김연준 자서전 사랑의 실천』(서울: 청문각, 1999), 308-309.

8 권송택, “김연준 가곡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기법,” 13-33.
저자는 <그대여 내게로>, <청산에 살리라>, <신 앞에 무릎 꿇고>, <제비> 등 다수의 김연준 가곡을 분석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본 연구는 김연준 가곡의 음악적 분석을 하고자 함이 아니므로 여러 특징 중 문학과 문화융합이 가능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서술하기로 한다.

9 권송택, “김연준 가곡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기법,” 23-24.

10 권송택, “김연준 가곡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기법,” 25.

가사의 내용을 전달하기에 매우 효과적이며 낭만주의적 문학이나 시의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해 김연준은 반음계적 진행, 중지의 연장, 위중지적 해결, 화성의 병행진행 등 19세기 후반 서양음악을 주도했던 기법들을 모두 사용해서 조성을 모호하게 이끌어 나간다. 이러한 모호성은 김연준의 현대가곡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쓰여진 시의 낭만주의적 상징성을 적절하게 반영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¹¹

음악 형식의 모호성(ambiguity)이 오히려 시의 낭만주의적 상징성을 적절하게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호성은, 소설과 같은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시의 특성과는 통한다. 따라서 이 같은 음악 형식에 걸맞는 문학, 특히 시의 수용은 필연적인 요구였다.

② 자연친화적 서정성

낭만적인 상징성과 함께 김연준 가곡의 특징 중 두 번째는 자연친화적 서정성이다.

김연준 가곡의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청산에 살리라>는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김연준은 이 작품에서 '청산'은 실제로 자연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삶의 진실과 진리를 상징하는 즉, 허무한 인간 세상에서 늘 푸른 자연같이 진실한 이상향을 마음에 담고 살겠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¹² 이 작품이 작곡된 1973년¹³이 김연준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 전달된다.

그런데, '청산'이 실제의 자연이 아닌 이상형이라는 것을 알고 보더라도, 그 이상형의 모습은 매우 구체적이다. 가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수풀 우거진 / 청산에 살으리라," "이 봄도 산허리엔 / 초록빛 물들었네" 등의 표현이 나온다. 이는 김연준이 말하는 이상향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현실의 자연에서 보는 모습과 계절의 변화를 그대로 가져간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자연은 한국인에게는 매우 익숙한 것이다.

장견실은 그 효과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김연준 가곡의 내용에 쓰인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난해한 현실비판적인 내용보다는

11 권송택, "김연준 가곡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기법," 45-46.

12 나진규, 『애창 한국 가곡 해설』 (서울: 도서출판 태성, 2003), 105.

13 가곡 <청산에 살리라>는 1974년 『김연준 가곡 100곡집 제3집』에 수록됐으며 1975년 성악가 오현명의 레코드 취입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려졌다. 이후 1980년 독일 성악가 헤르만 프라이(Herman Frey)가 한국 초청 음악회에서 앵콜곡으로 불러져 화제가 됐으며 음악예술잡지 『객석』 1985년 12월 호에는 이 곡이 그 해 성악가들이 가장 많이 부른 가곡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인간의 실제 삶, 즉 인생이 그의 주요 관심사였고, 또한 서정적 감흥을 노래한 낭만적인 주제가 그의 시를 관통하고 있는 대체적인 흐름이라고 볼 때, 일반대중들의 관심과 감성을 자극하기에 이것만큼 좋은 소재는 없는지도 모른다.¹⁴

이러한 자연친화적 서정성은 김연준의 가곡이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가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장건실은 이러한 특성이 고급음악과 대중음악의 이분법에 의해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던 예술음악이 '대중적 예술음악'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③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삶의 철학

마지막으로 김연준 가곡의 특성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인생철학이다.

김연준은 동시대의 작곡가들과 다른 경로를 거쳐 뒤늦게 창작활동을 시작했으나, 김연준에게 있어 교회 음악과의 인연은 유년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일찍이 기독교에 귀의한 부친의 영향으로 유치원시절부터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서양의 노래를 배웠고 이를 바탕으로, 1980년에 접어들면서는 성가곡을 통해 자신의 신앙관을 드러냈다. 김연준은 자신의 엄청난 창작력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돌렸다.

김연준의 성가곡은 다른 가곡들보다 전체적으로는 덜 낭만적인 선율선을 가지며, 리듬이나 화성, 반주에 있어서도 훨씬 단순한 편이다. 그러나 그는 예술가로서 직접 시를 쓰고 곡을 붙여냄으로써 성가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작업을 실천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여 그의 철학을 음악적으로 실현시켰다.¹⁵

김연준의 성가곡은 창작생활의 말기에 주로 쓰여졌다. 스스로의 고백처럼, 음악적으로 왕성한 창작기는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훨씬 깊어진 영혼의 고백으로 김연준 가곡의 특징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자리매김하고 있다.

2) 박목월 시의 특성

목월 박영중은 1916년 경상남도 고성에서 태어났다. 1939년 9월 『문장』지에 정지용의 추천을 받은 이후, <산그늘>을 발표함으로써 본격 시인으로 문단에 테

14 장건실, "김연준의 연가곡을 통해 본 그의 음악세계," 116.

15 지형주, "김연준의 성가곡," 『김연준 가곡의 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147.

뷔, 1978년 타계할 때까지 466편¹⁶의 시를 발표했다. 시집으로 생전에 발표된 3인 합작시집 『청록집(1946)』과 『산도화(1954)』, 『난·기타(1959)』, 『청담(1968)』, 『경상도의 가랑잎(1968)』, 『어머니(1968)』, 『무순(1976)』 등 6권의 개인시집, 『크고 부드러운 손(1979)』, 『소금이 빛나는 아침에(1987)』 등 2권의 유고 시집이 있으며 박두진, 조지훈과 함께 20세기 한국 현대시를 대표하는 시인이다.

박목월의 시들은 향토적 서정에 민요적 율조가 가미된 초기 시¹⁷부터 현실에 대한 관심과 인간의 운명이나 사물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가족이나 생활 주변에서 시의 소재를 택해 형상화했다. 시사적인 면에서 김소월과 김영랑을 잇는 향토적 서정성을 심화시켰으며 민요조를 개성 있게 수용하여 재창조한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장에서는 박목월 시의 특성을 살펴본다.

① 동심의 눈으로 발견한 순수성

박목월은 1939년 본격 시인으로 등단하기 이전에 박영종이라는 본명으로 동시를 썼다. 중학교 시절부터 동시를 창작해서 <동딱딱 동작작>이 잡지 『어린이』에, <제비맞이>가 『신가정』에 당선됐다. 그리고 『청록집』을 펴내던 1946년에도 『박영종동시집』과 『초록별』을 간행한다.

이처럼 활발하게 동시를 창작했던 배경은 동시에 대한 박목월의 인식에서 엿볼 수 있다.

목월은 동시에 대해 정의하기를 “동시란 첫째 동심에 호소하는 문학, 둘째 동심을 가진 자가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 문학”이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이는 박목월의 동시관을 나타내준다. 즉, 동시는 어린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심을 가진 자에 의한, 동심을 가진 이를 문학이라는 것이다. 목월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시를 썼기에 동시와 시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동심을 지향하는 시를 쓸 수 있었을 것이다.¹⁸

박목월이 동심의 눈으로 발견한 것은 성인이 되도 변하지 않는 순수성이었다. 박목월의 시와 동시를 동시에 놓고 봤을 때, 화자의 시선이나 어투 등에서 일견 달라 보이지만 전통적 요소와 향토성을 지향한다는 면에서 비슷하다는 해석¹⁹이

16 1984년 발행된 서문당의 『박목월 시전집』에는 총 364편이 실려 있으나, 2003년 이 남호가 엮어서 새로 발간한 민음사의 『박목월 시전집』에는 생전에 발간된 시집에는 실리지 않았던 미수록 시 102편을 포함해 총 466편이 실려 있다.

17 1946년 조지훈, 박두진 등과 낸 3인 시집 『청록집』은 시인과 자연과의 교감에서 얻은 향토적 서정이 보편적인 향수와 미감을 불러왔으며 해방 시단에 큰 수확으로 남아 있다.

18 한예찬, “박목월 시에 나타난 동심 지향성,” 『동화와 번역』 12 (2006), 293-294.

나오는 것도 이러한 순수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청은 이를 가리켜 “모든 성인들이 갈등과 변민으로 가득찬 현실세계에 던져진 자신이 돌아가 의지하고자 하는 심리상황이 유년시절이며, 박목월은 유년시절의 순박함과 상상의 세계관으로 시의 정도(正道)를 산 시인”²⁰이라고 평가했다.

② 한국어로 표현하는 향토적 서정성

박목월 시의 두 번째 특성은 한국어로 표현하는 향토적 서정성이다.

자연은 박목월의 초기부터 매우 중요한 시상으로 주목됐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박목월의 시선은 그의 시가 보여주는 특성을 설명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초기에는 『청록집』에 실려 있는 초기 시편들을 중심으로 시에 나타난 ‘자연’의 성격을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는 김동리²¹가 『청록집』의 의미를 ‘자연의 발견’이라고 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박목월 시의 ‘자연’에 관해서는 정한모, 정창범, 이건청, 신동욱 등이 긍정적 평가를 한 반면, 김우창, 박현수 등은 이를 ‘선험적 존재로서의 조국의 부재에서 기인’²²한다고 새롭게 해석했다.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박목월 시에서 ‘자연’이 차지하는 위상은 마음 속에서 불러낸 하나의 이상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견해가 일치한다.

시인 자신의 진술에서도 이러한 정서가 드러난다.

그 당시 나는 내대로의 환상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 어둡고 불안한 시대에 푸른 하계 은신할 수 있는 어수룩한 천치가 그리웠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조국은 어디나 일본치하의 불안하고 되바라진 땅이었다. 강원도 태백산맥이나 백두산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우리가 은신할 수 있는 한치의 땅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는 깊숙한 산과 냇물과 호수와 봉우리가 있는 마음의 지도를 마

-
- 19 한예찬, “박목월 시에 나타난 중심 지향성,” 294-296.
저자는 박목월의 동시 <조고리>와 시 <박꽃>을 인용하면서, 유년 동경 의식과 향토성, 전통 지향적 요소가 함께 들어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조고리>는 아기와 삼살이가 주인공으로 ‘예쁘나’, ‘못듣나 봐’ 같은 어투와 ‘살살’, ‘또옥’, ‘포옥’과 같은 부사어의 사용으로 동시적 분위기를 살린 반면, <박꽃>은 어른스럽고 과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투에서 차이가 난다고 해석한다.
- 20 유희, “박목월 시의 음악성 연구,” 『청람어문교육』 18/1 (1997), 203.
- 21 김동리는 1952년 청춘사에서 발간한 『문학과 인간』의 ‘자연의 발견’이란 글을 통해 박목월의 시가 “향토적 정서가 빚어내는 자연의 신비감에다 작사의 기초를 두고 있지만, 특이성에 사로잡혀 자연의 일반적 보편적 성격과 거리를 멀리하는 결과를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손진은, “박목월 시의 향토성과 세계성,” 『우리말 글』 28 (2003), 234. 재인용
- 22 박현수, “초기시의 기묘한 풍경과 이미지의 존재론,” 『박목월』 (서울: 새미, 2002), 250. 재인용

련하게 되었다.²³

박목월의 시의 자연이 이상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은 매우 구체적이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현실에서는 “불안하고 되바라진 땅”이었지만, 어린 시절의 정서가 남아 있고, 익숙해진 고향을 이상적 공간으로 지향한다. 이는 곧, 시적 화자와 대상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주관적인 감정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서정시의 특성이다.

실제로 박목월의 시는 리듬과 율격이 우리 호흡에 잘 어울리고 자연을 배경으로 하여 간결한 시어들이 시인만의 방법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동요를 쓰면서 익힌 리듬감과 함께 여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말로, “지극히 간소한 어휘의 조직만으로도 우리말로 짜여진 언어의 음악이 들려줄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구현”하고 있다.²⁴

이러한 경향은 후기 시집인 『경상도의 가랑잎』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시인이 고향으로 돌아와 만나는 것은 옛날과 같은 자연이 아니라 자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시어 역시 경상도 사투리의 리듬으로 회귀²⁵하고, 향토적 서정성은 더욱 강화된다.

③ 기독교적 성찰을 바탕으로 한 진지성

박목월 시의 세 번째 특징은 기독교적 성찰을 바탕으로 한 철학적 진지성이다.

박목월은 신앙심이 남다른 어머니와 기독교적 가정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 미션스쿨인 계성중학교에서 청소년기의 교육을 받는 등 기독교적 인생관을 접하면서 자라났다. 일생 동안 성실한 신앙인의 가정을 꾸려오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담긴 많은 시를 썼다.²⁶

23 박목월, 『청록집』 (서울: 삼중당, 1980), 132.

24 남진우, “상상된 자연, 무갈등의 평온과 소외의식의 거리,” 『한국근대문학연구』 19 (2009), 292.

저자는 <나그네>를 예로 들며,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정취를 자아내는 풍경 속에서 지상의 길과 인간을 천상의 질서를 나타내는 구름과 달에 대비함으로써 한층 심화된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25 한광구, “박목월 시의 향토성,” 『한민족문화연구』 4 (1999), 40-42. 요약

저자는 <이별가>를 인용, “하직을 말자 하직 말자 /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 뭐라카노 뭐라카노 / 니 흰 옷자라기만 펄럭거리고...” 등 경상도 사투리의 리듬으로 돌아간 시인이 고향을 통해서 마침내 시간과 공간이 통합됨을 체험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26 박승준, “박목월 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시의식,” 『배화논단』 18 (1999), 33.

저자는 박목월의 전 시집 중에서 기독교적 시의식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는 것으로 ‘난·기타’, ‘청운’, ‘경상도의 가랑잎’, ‘크고 부드러운 손’을 꼽았다.

박목월 시의 서정적 근원은 대상은 초기시의 자연, 중기시의 가족, 후기시의 신을 지향한다. 금동철은 후기로 갈수록 박목월의 시에 드러난 자연이 밝은 이미지로 변화하는 것에 주목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시인은 신의 은총 아래에 있는 자연과 그렇지 않은 자연 사이에 전혀 상반된 태도를 취한다. 신과는 상관없이 현실 속에 있는 자연은 어둡고 암울한 이미지가 된다면, 신의 은총과 결합된 자연은 밝고 희망찬 아름다운 이미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과 결합된 밝고 환한 자연 이미지는 후기시에 오면 기독교적 초월로 나타난다. 이것은 자연 자체의 이법에 귀의하여 얻는 동양적 달관과는 달리, 신의 은총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고 현실 자체를 긍정하게 되는 초월의 경지라고 하겠다.²⁷

이는 시인이 처한 시대와 정서적 상황에 따라 대상을 보는 시각에 차이를 가져왔지만, 자연이라는 공통된 소재로 다양한 시들을 써내는 동안 줄곧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면과의 접점을 찾으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 서정성을 기반으로 한 예술적 교감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백남 김연준 가곡과 목월 박영중 시의 특성을 바탕으로, 음악과 문학이라는 서로 다른 예술 장르가 어떻게 교감하고 융합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김연준 자신이 직접 골라서 집대성한 330곡에 한정하여 논의하기로 한다.²⁸

1) 서로를 필요로 하는 시와 음악의 서정성

앞서 논의한대로, 김연준의 가곡은 낭만주의적 상징성, 자연친화적 서정성,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인생철학을, 박목월의 시는 동심의 눈으로 발견한 순수성, 한국어로 표현하는 향토적 서정성, 기독교적 성찰을 바탕으로 한 진지함을 특성으로 한다.

김연준 본인이 연희전문학교에서 문과를 전공해 문학적 감수성을 갖고 있었

27 금동철, “박목월 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자연관 연구,” 『우리말 글』 32 (2004), 238. 저자는 <나무>나 <동정(冬庭)>, <하관> 등의 자연 이미지가 현실적 삶이 주는 무거운 중압 때문에 차갑고 어두운 자연 이미지를 형성한 것에 비해 <전신>에서는 신의 은총과 결합해 밝고 환한 이미지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28 본 연구의 자료로는 김연준의 가곡이 3,600여 곡에 이르는 방대한 양임을 참작, 작곡가 자신이 선별한 곡들이 수록된 한양대학교출판원 간행의 1994년 판 『김연준 가곡 330곡 선곡집』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앞으로 문화융합과 관련된 연구에도 이를 활용하기로 한다.

고, 실제 그의 가곡 중 상당수가 자작시를 바탕으로 한 것들이다. 그러면서도 가곡을 작곡하는 데 있어 다른 시인들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는데, 이는 소리로 표현되는 음악과 글로 표현되는 문학의 예술적 교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오타베 다네히사²⁹에 의하면, 성악이 운문에 의한 지지를 요구하는 것은 자연 본성에 들어맞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악은 자연 본성적으로 운문을 수반한다. 왜냐하면 음악의 본질은 박자에 있고, 이러한 박자에 적합한 말은 다름 아닌 '운문 혹은 시'이기 때문이다. 다만 성악의 버팀목이 되는 말은 확실히 음악의 박자에 적합한 운문이 어울린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반드시 운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³⁰

오타베 다네히사의 지적은 가곡이 시문학과 연계성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음악 그 자체로서도 작곡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 창작의 의지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악은 자연 본성적으로 운문을 수반함으로써 형식의 완결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문학(운문)의 수용은 명확한 주제의 표현과 오브제(事物)의 묘사, 예술적 분위기의 표현을 얻게 되므로 성악의 버팀목이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운문과 음악의 상보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의 대표적인 사례는 선율과 반주로 독일 가곡의 새 장을 연 <겨울 나그네>(Winterreise)란 연가곡이 증명한다. 빌헬름 뮐러(Wilhelm Müller, 1794~1827)의 시와 프란츠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의 음악이 만든 걸작 <겨울 나그네>는, 문학과 음악이 서로 다른 예술 영역의 경계를 넘어선 만남과 교류의 전범적(典範的) 사례이다. 엄선애는 “슈베르트가 뮐러의 연작시를 알지 못했더라면 더 많은 독자와 청자를 확보하지는 못했을 것”³¹임을 지적하며 필연적으로 음악이 문학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슈베르트는 그가 체험하지 않은 것을 그에게 보완해줄 심상이 필요했고, 시인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그 때문이기도 했다. 시인들은 자극과 격려를 주었고, 형상과 형태, 사건을 제공했으며 슈베르트는 그들과 함께 언어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³²

29 오타베 다네히사(小田部胤久), 김일림 옮김, 『예술의 역설』 (서울: 돌베개, 2011), 248.

30 오타베 다네히사, 『예술의 역설』, 248.

31 엄선애, “시에는 울림을, 음악에는 말함을-빌헬름 뮐러와 프란츠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및 제5곡 ‘보리수’의 해석,” 『독일언어문학』 15 (2001. 6), 387-388.

오타베 다네히사의 지적에서 보듯이, 성악이 운문에 의한 지지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이는 음악사적으로도 시와 음악의 결합이 예술가곡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키게 된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필연성, 즉 시와 음악의 관계에 주목한 김연준의 관심은 당대 최고의 시인들의 시에 눈을 돌리게 되고, 김영랑, 박남수, 전봉건, 김광림, 홍윤숙, 황금찬, 이은상 등 한국 시문학의 거장뿐 아니라 그 당시 시단의 신예인 김여정, 문효치, 신동춘 같은 젊은 시인의 시에까지 관심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이들의 시와 자신의 음악 세계를 접목하는 예술적 실험을 전개한다.

이러한 문학적 섭렵과 실험의 결과를 통해 김연준 예술가곡이란 독창적 영역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시인 박목월과 김연준의 만남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김연준은 그의 말년에 박목월을 가리켜 “우리의 모국어를 가장 순수하게 다룰 줄 알던 연금술사 중의 한 분”이라고 극찬했다. 김연준은 운문과 음악의 상인(相因)의 관련성을 그의 문학적 감수성으로 간파했고, 자작시의 창작을 넘어서 자신의 예술적 취향(taste)에 맞는 시인들의 시에 주목한 것이다. 이를 보면 두 예술가 사이의 개인적 친분을 차치하더라도, 김연준이 한국 문단에서 서정시의 거목으로 인정받는 박목월 시의 서정성을 수용하고 가곡을 작곡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자연친화적 서정성과 기독교적 삶의 철학이라는 공통성이다. 두 사람의 예술세계를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이 같은 공감 영역은 음악과 시문학의 상인(相因)의 연계성으로 교감하고 그 공감영역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 합작, 즉 예술가곡의 탄생을 가능케 하는 연결고리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박목월의 경우 작곡가 김성태와 <이별의 노래>, 김순애와 <4월의 노래>를 통해 이론 선형적 융합의 경험과 김연준이 박목월 외의 시인들의 시에 주목했던 섭렵의 경험들이 상호 연계되면서 두 사람의 예술적 교감을 완성시켜 나가는 계기를 만든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합작해서 완성시킨 작품들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보면, 김연준 예술가곡의 보다 구체적인 서정성의 실체가 드러난다.

김연준의 음악과 박목월의 시가 조우한 예술적 배경은 앞서 요약, 정리한 두 사람의 예술적 특성과 부합한다. 본고의 분석 텍스트인 『김연준 가곡330곡 선곡집』에 실린 박목월의 23편의 시는 두 사람의 예술적 결속이 얼마나 필연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구체적 증빙이다.

32 엄선애, “시에는 울림을, 음악에는 말함을-빌헬름 뮐러와 프란츠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및 제5곡 ‘보리수’의 해석,” 392.

<표 1> 『김연준 가곡330곡 선곡집』 수록작가 분석일람표(가나다 순)

이름	고진숙	권일송	김계덕	김광림	김규화	김남석	김병수
편수	27	4	4	6	3	18	7
이름	김소월	김양식	김여정	김영랑	김용수	김의홍	김재동
편수	3	12	4	1	2	1	1
이름	김지향	김진희	모기윤	문창목	문효치	방지형	박남수
편수	22	1	1	1	11	1	3
이름	박목월	박은중	박재삼	박현령	신동춘	신세훈	양명문
편수	23	1	21	6	21	7	7
이름	유성운	유정	유혜자	이은상	이정원	이항수	전봉건
편수	1	5	6	1	9	5	1
이름	전재동	정의홍	최명림	최영림	홍윤숙	황금찬	합계
편수	3	12	4	6	37	3	312 ³³

2) 김연준 가곡으로 융합된 박목월 시의 유형

앞서 김연준 가곡의 특징과 박목월 시문학의 특징을 요약, 정리한 결과를 도표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김연준 가곡과 박목월 시문학의 특성

김연준 가곡의 특성	박목월 시문학의 특성
1. 낭만주의적 상징성 2. 자연친화적 서정성 3.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삶의 철학	1. 동심의 눈으로 발견한 순수성 2. 한국어로 표현하는 향토적 서정성 3. 기독교적 성찰을 바탕으로 한 진지성

두 사람의 예술세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서정성인데, 그 구체적 인 하위 단위의 서정성은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다. 서정성이 지향하는 기조는 그리움으로, 이 그리움의 정서는 4개의 서정으로 구획된다.

- ① 그리움의 서정
- ② 사랑에 대한 희망의 서정

33 『김연준 가곡 330곡 선곡집』에는 김연준이 직접 작사한 18곡을 합해 총 330곡이 수록돼 있다.

③ 그리움과 미래적 희망의 서정

④ 기독교적 서정

이렇게 구획된 서정의 유형을 앞서 논의한 두 사람의 예술세계가 가지는 특성과 부합, 상호 교감을 통해 예술가곡의 새로운 장르를 창조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박목월과 김연준의 합작으로 창조된 이 작품들이 『박목월 시전집』³⁴에는 수록되지 않은 작품들이란 사실이다. 박목월의 시는 김연준과의 공동작업을 위해서만 창작되었다는 것이다. 기 발표되거나 시집에 수록된 작품을 활용하여 예술가곡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김연준 예술가곡만을 위해 별도로 창작되었고 상호간의 예술창조의지로 문학과 가곡의 기존 창작형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예술 장르를 창작했다.

이 두 사람이 서정성을 기반으로 하여 합작한 예술가곡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서정성에 따른 그리움의 정서 분류³⁵

유형	제목	가사(시)	비고
그리움의 서정	구름의 노래	새들도 떼를 지어 집으로 돌아가는/저무는 들 판 위로 구름이 떠간다/돌아갈 때 가 되며는 발을 가진 자이든 날개를 지닌자이든/본향으로 돌아간다	p58
	그대를 만날 때	그대를 만날 때는 가슴 부푸네/그대를 만날 때 는 가슴 울렁거리네/그대와 손을 맞잡고/저 강 가를 걸으면 흐르는 물 부는 바람결/행복을 속 삭여 주네/떠가는 구름 나는 새 행복을 속삭여 주네/그대만 나 게 되면은 세상이 거룩해져	p61-62
	꽃 피는 사월 돌아오면	목련가지 마다 환하게 꽃 피는 사월이 돌아오 면/절로 그리워라 겨레를 위하여 정성 다 바치 고/겨레의 제단에 목숨을 버린 위대한 그 사람 그님 그리워라	p123

34 『박목월 시전집』은 1994년 서문당에서 발행되었으며 2003년 이민호가 새로이 민음사에서 발간한 바 있다. 2003년 판 『박목월 시전집』에는 시인의 전 시편 외에 그동안 어떤 전집에도 수록되지 않았던 102편의 시를 새로이 발굴해 실었으나 『김연준 가곡330곡 선곡집』에 실린 박목월의 시 23편은 포함되지 않았다.

35 제목의 번호와 맞춤법, 띄어쓰기는 책에 실린 것을 따름

유형	제목	가사(시)	비고
그리움의 서정(2)	그리운 밤에	잘 자렴 내 사랑아, 편히 쉬렴 내 사랑아/오늘 밤 나의 꿈에서 그대 만나게 되리/첫사랑을 맹세한 아가 외나무 그늘 아래서/나 외로운 꿈길에서 만나게 될 반가운 모습 /그대의 품이 그리운 이밤 꿈속에서라도 그대를 만나 기를/빌며 빌며 외롭게 잠 드세	p87-88
	모란이 필 때	1절) 모란이 피었네 모란 꽃 피었네 모란 꽃 피듯이 내 사랑 피게 될까 탐스러운 모란 꽃 송이 가지마다 피듯이 탐스러운 모란 꽃송이 가지마다 피어 나듯이 나의사랑 도 환하게 꽃 피게 될까 말까 안타까운 이봄에 모란 꽃이 피었네 2절) 비둘기 짝지어 구구우 우는 봄 비둘기 우듯이 내사랑 피게 될까 골짜마다 비둘기 쌍쌍 짝지어서 울듯이 골짜마다 비둘기 쌍쌍 짝을 지어서 울듯이 나의 사랑도 환하게 꽃 피게 될까 말까 안타까운 이봄에 모란꽃이 피었네	p249-250
	푸른 언덕	봄이 왔네 새봄이 저 언덕은 푸르고/시냇물은 졸졸졸 노래하며 흐르네/묵혀두었던 발들음/소를 몰고 나와서/발걸이를 하누나 농부들은 즐겁게/저 하늘엔 종달새 아름다운 소리로/노래하며 반기는 따뜻한 봄이 왔네	p615-616
	옥피리	안개 피는 밤 강가에 앉아/사무치는 그리움 피리를 분다/피리는 옥피리 구슬픈 가락이 하늘에 사무쳐/견우와 직녀가 오작교 건너 서로 만나누나/하늘 구만리 애를 태우던 하늘 구만리 애를 태우던/별의 사모가 이 밤에 들리네	p456-457
희망의 서정	겨울 밤의 별	저 숲 사이로 빛나는 겨울의 별이여/밤이 새도록 외롭게도 등불을 들고서 애타게도 그 누구를 기다리나/기다림의 기나긴 세월 속에서 봄여름가을이 가버려도/언젠가 오실 그분을 위하여/굵은 사랑의 심지에 불을 밝혀 들고서/기나긴 겨울밤 뜬 눈으로 새우네	p28-31

유형	제목	가사(시)	비고
희망의 서정(2)	노을진 행당 언덕	노을 비긴 행당산 돌아가는 사람들/우리 모두 이 밤을 편히 쉬며 꿈을 꾸리라/아름다운 사랑 의 꿈이 한밤에 꾸리라/찬란한 내일의 빛나는 태양이 동산에 솟아 오를 때/밝은 마음 웃는 낮으로 다시 만나게 되리라/진리의 샘 맑은 샘 솟는 동산에서 낙원에서/푸른 꿈을 서로 손잡 고 함께 함께 가꾸리	p181-182
	샘같이 꽃같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저 산골의 샘 같이/웃음 짓 는 그 얼굴로 피어나는 꽃같이/웃음 짓는 얼굴 로 피어나듯이/기쁨으로 충만한 나의 사랑 나 의 꿈/태양같이 빛나는 우리들의 젊음 아름다 운 푸른 날개/힘차게 저으며 꿈꾸는 하늘로 날 아가리라	p362-363
	사랑의 등불	사랑의 등 밝혀들고 머나먼 길가노라/비 바람 몰아쳐도 꺼지지 않는 사랑의 등불/고달프고 힘한길 서로도와 가노라면 즐거움이 솟아나리 사랑의 등불 밝혀들고 다정 하고/살뜰하게 살아가리/사랑의 등 밝혀들고 머나먼 길가노라면/즐거움 가슴 가득차오고 사 는 보람 가슴 벽차게도/살아나리 살아나리/살 아나리 살아나리	p324-326
	작은 아가씨의 꿈	어린 날 그님이 꿈 가꾸던 그리운 그 땅에 봄 이 오면 제비는 옛위에/돌아와서 그 처마 밑에 깃드네 어린 날/그이 노니던 그 돌산에 갖가지 꽃이 피어서 환하게만 발하네/초삼월 새봄이 돌아와서 남에서 바람이 불어오면/그 님의 모 습이 새롭게 살아나네 1) 언젠가 조국이 통일되어 여원한 새봄이 오며 는 그리운 님이 다시 살아나시리라 2) 언젠가 조국이 통일되어 여원한 평화가 오며 는 그리운 그 님이 살아나시리라	p514-515
	찬란한 꿈	아름답고 찬란한 꿈이여/슬픔의 강물 굽이굽이 건너 돌아온 오월의 햇빛 속에/탐스럽게 피는 모란 꽃/모든 시련 모든 괴로움을 인내와 의지 로 이겨내고/이제 탐스럽게 꽃피는 오원월 모 란 꽃이여/아름답고 찬란한 꿈이여/위대한 사 랑의 꽃 모란이여/슬픔과 시련을 이겨내고 꽃 피는 사랑의 여왕	p560-561

유형	제목	가사(시)	비고
그리움과 미래적 희망의 서정	별들의 속삭임	1절) 저 먼 하늘에서 빛나는 신비로운 별의 속삭임 머나먼 곳에서 밤새도록 속삭이는 별의 속삭임 깜박깜박 높이 빛나고 다정한 눈짓 보내며 잠 못 이루는 밤과 밤을 속삭이며 밝히네 오 별이여 이 밤에 서로 잠 못 이루는 창가에서 너와 더불어 영원 영원을 생각하면서 오 별이여 나와 더불어 너와 함께 속삭이면서 밤새워 이밤을 밝히네 오 별이여 밤을 밝히네 2절) 저 먼 하늘에서 빛나는 신비로운 별의 속삭임 먼나먼 곳에서 밤새도록 속삭이는 별의 속삭임 깜박깜박 높이 빛나고 신비로운 저 별나라 꿈과 평화의 그 나라로 꿈과 평화의 깃들로 오 동경의 희디 흰 두 날개를 펴고서 창가에 서서 너와 더불어 영원 영원을 살아보 리라 오 별이여 나와 더불어 별이 되어 속삭이면서 영원히 살아 보리라 오 영원히 살아보리라	p294-295
	잊지못할 그 음성	가셨다고 그님을 잊을 수 있으랴/가셨다고 그 님을 잊을 소냐/철 따라 꽃피면 송이마다 그립 고/부는 바람결에도 살아나는 음성 세월이 갈수 록/사무치는 구나 세월이 갈수록 그 님이 사무 치게 그리워지네	p493-499
	저 산 넘어	길을 찾아 구름은 동서로 헤매이고/철새 떼는 계절 따라 천만리 넘나든다/편히 쉴 곳 행복하 고 영원한 행복하고 영원한/내 본향아/저 산위 에서 별들은 신비롭게 반짝이고/저 산을 넘고 또 넘어도 잡을 수 없는 행복/편히 쉴 곳 행복 하고 영원한/행복하고 영원한 내 본향아	p527-528
	첫 사랑의 꿈	1절) 저녁 노을처럼 하염없이 살아진 애트한 꿈이어 아름다운 첫사랑 서로 귀를 붙히면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사과 밭 꽃 그늘아래 다소곳이 고개 숙여 꿈꾸며 함께 거닐던 그 날 의 추억이어	p571-572

유형	제목	가사(시)	비고
그리움과 미래적 희망의 서정(2)	첫 사랑의 꿈	2절) 흰 구름처럼 속절없이 살아진 애뜻한 꿈이어 아름다운 첫사랑 이제 그와 나 사이에 구만리가 가로 막혀 영영 못만날지라도 어이 그대를 잊으랴 아름다 운 첫사랑 애뜻한 추억이어	p571-572
	황혼의 바닷가에서	넓고 넓은 바다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타고/저 멀리서 밀려오는 파도는 희게 부서진다/흰 머리 를 바람에 날리며 바닷가를/고개 숙이고 서성거 리며 지나온 날을/하염없이 되돌아 본다 나의 생애가/저 파도에 넘실넘실 출렁거린다/나의 생 애가 파도에 넘실넘실 출렁거린다	p638-639
	이밤에 저별은	풀밭에 누어 별을 헤인다 무더운 여름/밤 하늘 에 빛나는 별을 한하나/앞날의 행복 점치면서 별들조차도/그리움으로 아롱져 흐르는 은하수처 럼/하늘의 길을 세월 없이 서로 달려와서 만나 는 밤/그리운 이여 어느 날에 은하수 강물에 놓 여있는 저 오작교를 건너서/가면 만나는 그날이 오게 되리/만나는 그날이 오게 되리라	p478-479
기독교적 서정	신 앞에 무릎 꿇고	거룩한 제단 그 제단 위에 뉘우침의 촛불/환하 게 밝혀 두고 이제야 경건한 경건한/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가 무릎 꿇게 됩니다/괴로운 일 즐 거운 일 멀고먼 인생길을 다 걸어와/이제야 당 신 앞에 내가 나아와서 무릎 꿇고 뵙니다/뉘우 침으로 촛불 밝혀두고 거룩한 제단에 이제 나와 서/경건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p391-392
	영원한 꿈	흐르는 냇물에 썬보는 그 이름/사라진 별이어 영원한 꿈이어/이미 지나간 이미 홀려지나간/옛 날 옛날의 그리운 그 모습 허무한 것일수록/안 타깝게도 그리워라 그 옛날에 안 잊히는 그 이름	p443-444
	달밤의 바다	사나운 성난 파도 고요히 잠들고 지금은/달빛 속삭이는 잔잔한 바다/인생의 모든 시련과 역경 모두 물리쳐 이길 때마다/하느님 크신 은총이 나를 지켜 주시고/드디어 승리로 승리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셨네/사나운 모든 파도 고요히 잠들고/흰 달빛이 아름답게 수놓는 충만한 나의 바다여/하느님의 크신 은총 평생토록 나를 감싸 시고 지켜주셨네	p209-210

유형	제목	가사(시)	비고
기독교적 서정(2)	새벽의 기도	저 하늘의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는/이른 새벽기도를 두 손 모아 드립니다/오늘 하루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어려울수록 더 큰 기쁨 솟아나게 하소서/우리들의 영혼을 맑게 하여 주소서/바른 길 가도록 이끌어 주소서/저 하늘의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는 이른 새벽 기도를/두 손 모아 드립니다/당신에게 영광된 하루되게 하소서	p356-357

첫 번째 유형인 그리움의 서정은 소위 자연친화적 서정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때를 지어 집으로 돌아가는 새,’ ‘들판 위로 떠가는 구름,’ ‘흐르는 물,’ ‘부는 바람 곁,’ ‘가지마다 환하게 목련이 피는 4월,’ ‘첫사랑을 맹세한 아가 외나무,’ ‘짜지어 구구 우는 비둘기’ 같이 박목월 초기 시에서 보여주는 ‘자연을 배경’으로 한 간결한 시어와 리듬 및 율격과 오브제들이 주된 내용이며 이는 김연준 가곡의 대표작인 <청산에 살리라>에서 보여준 자연친화적 서정성과 합일한다.

두 번째 유형인 희망의 서정은, 앞서 본 첫 번째 유형과 달리 구체적이며 선명한 서정의 실체와 희망으로의 지향목표가 가사를 통해 구현되는 것을 말한다.

‘오작교에서 만나는 건우 직녀,’ ‘언젠가 오실 그 분,’ ‘행당산을 돌아가는 사람들,’ ‘힘차게 날개를 저으며 하늘로 날아가는 젊음의 푸른 날개,’ ‘언젠가 통일이 되는 조국’ 같은 오브제가 보여주는 희망의 지향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인 그리움과 미래지향적 서정은 앞서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의 혼합 형태이다.

‘별들의 속삭임’과 ‘영원히 살아보리라’의 결합, ‘잊지 못할 사랑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사과 밭 꽃 그늘 아래서의 첫사랑’ 같은 가사를 통해 자연친화적 서정과 미래적 희망이 동시에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적 서정인데, 이는 성서의 진리를 구현하는 신학적 발상이 아니라 문학적 감수성에 의하여 포착된 예술적, 감성적 가사를 드러낸다.

‘뉘우침의 촛불을 밝히고,’ ‘당신(하느님)에게 무릎 꿇는 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영혼을 맑게 해달라는 기도,’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는 새벽기도’와 같이 기독교의 신앙적 성찰과 문학적 감수성이 결합된 작품으로 나타난다.

이상 살펴본 23편의 예술가곡은 시인 박목월이 김연준과의 예술가곡 창작을 위해 새롭게 창작한 것이고, 두 사람의 예술의지가 합일되어 융합된 창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들은 지금까지 박목월 문학 연구에서는 선생 연구 실적이 없는 전인미답의 작품이기도 하다.

3. 문화융합 측면에서 본 박목월의 시와 김연준 가곡의 융합 원리

앞서 본고는 예술가곡이란 용어의 재개념화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김연준 예술가곡의 범주를 한정한 바 있다. 이 같은 본고의 논지로 볼 때 백남 김연준과 목월 박영종이 공동으로 이루어낸 장르융합을 통한 예술가곡이란 새로운 예술 장르 탄생의 배경에는 어떠한 공식구(formula)와 결합 구성의 원리가 내재돼 있는가를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문화콘텐츠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문화융합의 창작원리이며 창조적 상상력(creative imagination)을 바탕으로 하는 장르 통섭의 원리이며 본고의 논의를 명증할 이론이기 때문이다.

1) 조화(harmony)와 분위기(mood)의 합일

최근 문화콘텐츠산업에서 문화융합이라는 용어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문화융합은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닌 문화들이 결합함으로써 기존의 것을 넘어서 또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문화산업적인 측면에서 문화융합은 두 가지 이상의 문화가 서로 어울려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의미의 기능적 또는 상호작용의 개념으로 쓰인다. 문화융합이라는 한글 표현은 기능적 유형에 따라 컨버전스(cultural convergence) 퓨전(cultural fusion)의 두 가지 의미로 나뉜다.³⁶

창조적 재조합, 즉 재조합적 혁신을 가리키는 컨버전스에 비해 퓨전은 겉보기에는 하나같지만 사실 속성이 다른 장르의 문화가 융합된 형태이다. 컨버전스가 물리적 융합이라면, 퓨전은 완전히 성분과 형질이 달라진 화학적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컨버전스(cultural convergence) : A + B → AB

퓨전(cultural fusion) : A + B → C

36 김용범, “무형문화자산의 문화적 활용과 상품화 전략,” 『문화정책논총』 21 (2009), 216-220.

저자는 문화융합의 유형을 컨버전스(cultural convergence), 컬덕트(culduct), 퓨전(cultural fusion)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으나, 본고에서는 주 논의에서 거리가 있는 컬덕트를 제외하고 서로 대비되는 특성을 지닌 컨버전스와 퓨전 두 가지 유형만을 다루도록 한다.

컨버전스나 퓨전과 같은 문화융합이 가능한 이유는, 타자의 이념이나 가치 체계를 향해 이해와 공감의 시선을 도모해보려는 공생적 경계 넘기(boundary-crossing symbiosis)와 이질적 관점의 융합(Heteroglossia)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를 위해 아서 케스틀러(Arthur Koestler: 1905-1983)는 이연연상(二連聯想: Bisociation)이라는 발상법을 제기했는데, 창조자들은 해결하려는 문제가 풀릴 때까지 모든 정열을 주어진 목표에 쏟아 부으며 계속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어느 순간 그때까지 서로 관계가 없었던 어느 경험과 자신의 목표의식이 돌연 관계를 맺게 된다는 아르키메데스(Archimedes: BC 287-BC 212)의 유레카(Eureka)적 발상법이다.

그동안 문학에서는 서로 다른 작품 간의 영향의 문제를 다룰 때 상호텍스트성이라는 용어를 써왔지만, 이연연상은 영향관계의 측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각성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창작의 결과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에 몰입하는 집중력과 창조적 상상력, 그리고 통찰력이 필요하다. 또한 각각의 대상이 갖고 있는 기존의 속성들을 결합함으로써 그 모습과 의미가 바뀌어 새로운 이미지들의 통일체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상상력(creative imagination)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목월의 시와 김연준의 가곡의 결합은 문화융합 유형 중에서도 퓨전으로 형상화될 수 있다. 즉 $A+B=AB$ 의 물리적 문화융합이 아니라 재조합의 혁신을 이뤄낸 $A+B=C$ 의 형태가 된다.

이는 시와 음악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성에서 기인한다. 시의 내용, 형식, 운율은 가곡의 조성, 박자, 악절과 결합하여 새로운 퓨전을 이루어내는데, 김연준 가곡은 그 자체의 음악적 형식만으로도 서정성을 드러내면서, 박목월의 시를 만담으로써 조화(harmony)를 이루고 공감영역을 넓혀갈 수 있었다. 박목월의 시 역시 음악과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향유자를 창출해냈다. 두 예술가의 창조적 상상력이 장르융합을 통해 예술적 결합을 이루었고, 이 단계에서 박목월 시와 김연준 가곡은 시문학과 음악이라는 장르를 떠나 예술가곡이라는 융합 장르로 새롭게 정의된다.

2) 시의 확장성이 가져온 소통

시는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 일반적으로 간결하고 절제된 양식을 추구하며 감정의 정수를 추구함으로써 서정성을 획득한다. 현대에 와서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의 조형성이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언어를 매개로 하는 시의 속성은 변질되지 않으며 언어예술 가운데 가장 음악과 가까운 것이 시문학이다. 이

종원은 다른 문학 장르와 비교하여 이러한 음악성이 시의 본질임을 강조한다.

소설의 경우 대화의 일부에서 음악적 요소를 부가할 수는 있으나 작품 전체의 어조가 음악성이 농후해지면 결국 감정의 편린이 과도하게 노출되어 서사 전체의 객관적 진실성을 상실하게 되어 서사물로서의 실패를 노정하게 된다. 극 양식의 경우 역시 등장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에서 운율감을 지닌 대사가 구사될 수는 있으나 극 전체가 그러한 어조로 구성되어서는 극적 긴장감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시는 음악성을 그 본질적 속성으로 구비하여 그것과 생명을 같이 하는 것이다.³⁷

시의 음악성은 바꿔 말하면 시의 확장성이다. 즉 시는 음악뿐 아니라 다른 예술 장르와도 다양하게 융합할 수 있는 속성을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김연준 가곡330곡 선곡집』에 실린 박목월의 시 23편은 창작 당시부터 가곡과의 문화융합을 염두에 두고 쓰인 것들이다. 박목월은 시 창작 과정에 있어서 문자로 소통하는 시와 음악과의 퓨전으로 소통하는 시를 구분했던 것이다. 이 23편의 시는 일반적인 시의 소통 방법이었던 문자화된 시와 예술가곡으로 융합될 시를 구분했던 박목월의 의도 때문에 그동안 어느 전집에도 수록되지 않은 작품이었다. 이는 박목월이 시의 확장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예술가곡을 택했음을 보여준다.

III. 결론

본 연구는 작곡가 백남 김연준의 가곡으로 수용된 시인 목월 박영종의 시문학을 문화융합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음악과 문학이란 예술 장르의 상보적 융합으로 완성된 가곡을 ‘예술가곡’으로 개념화하고, 새로운 작품의 창작을 위하여 작가(시인)와 작곡가가 합작(合作)하여 탄생시킨 예술작품으로 규정했다.

김연준과 박목월은 음악과 문학이라는 각각의 장르에서 독보적 위상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만남과 교류는 예술가곡이라는 독창적인 예술 장르를 탄생시켰다. 성악이 운문에 의한 지지를 요구하는 것은 자연 본성에 들어맞는 것으로 가곡은 시문학과와의 연계성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이유가 된다.

따라서 낭만주의적 상징성, 자연친화적 서정성,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삶의 철학이라는 특성을 가진 김연준의 가곡과 동심의 눈으로 발견한 순수성, 한국어로 표현한 향토적 서정성, 기독교적 성찰을 바탕으로 한 진지성이라는 특성

37 이승원, “시의 본질과 특성에 관한 소고,” 『한양어문』 13 (1995), 523.

을 가진 박목월의 시는 필연적으로 서로의 예술 장르와 융합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박목월이 시를 쓰고 김연준이 작곡한 23편의 가곡에서 두 사람의 예술세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로 자연친화적 서정성과 기독교적 삶의 철학이라는 공통성에 주목했다. 두 예술가가 합일을 이룬 서정성은 그리움에 대한 서정, 사랑에 대한 희망의 서정, 그리움과 미래적 희망의 서정, 기독교적 서정의 4가지로 구획된다. 이 같은 공감영역은 음악과 시문학이 상인(相因)의 연계성으로 교감하고 그 공감영역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 합작, 즉 예술가곡의 탄생케 하는 연결고리로 작용한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23편의 예술가곡은 시인 박목월이 김연준과의 예술가곡 창작을 위해 새롭게 창작한 시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두 사람의 예술의지가 합일되어 융합된 창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들은 지금까지 박목월 문학 연구에서 선행 연구 실적이 없는 전인미답의 작품이기도 하다.

김연준과 박목월이 공동으로 이루어낸 장르융합을 통한 예술가곡은 문화콘텐츠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문화융합의 창작원리를 보여준다. 문화융합은 서로 다른 장르가 본연의 속성을 간직한 채 창조적, 혁신적으로 재조합된 컨버전스(cultural convergence)와 겹보기에는 하나같지만 사실 속성이 다른 장르의 문화가 융합돼 성분과 형질이 달라진 퓨전(cultural fusion)의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뉜다. 즉 물리적 융합과 같은 $A+B=AB$ 의 유형이 컨버전스라면, 화학적 융합과 같은 $A+B=C$ 의 유형이 퓨전이다.

시인 박목월과 작곡가 김연준이 창조해낸 예술가곡은 문화융합의 유형 중에서도 퓨전에 속한다. 음악 본연의 무드(mood)를 지닌 김연준의 가곡은 박목월의 시와 융합됨으로써 조화(harmony)를 이뤄 공감역역을 넓혔는데, 이는 시의 확장성에서 기인한다. 박목월이 기 발표된 작품이 아니라 신작 창작물을 계획적, 의도적으로 결합, 예술가곡으로 재탄생시킨 배경에는, 시인 스스로 문자로만 소통하는 시와 음악과의 퓨전으로 소통하는 시가 서로 다른 장르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지했던 것이다.

시인 박목월과 작곡가 김연준의 문화융합은 두 예술가의 정서적 교감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김연준 가곡330곡 선곡집』에 수록된 23곡을 대상으로 ‘예술가곡’을 탄생시킨 문화융합의 원리를 살펴봤으며 두 예술가가 시도했거나 완성한 다른 유형의 장르융합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한글검색어: 김연준, 박목월, 예술가곡, 서정성, 문화융합, 창조적 상상력, 퓨전

영문검색어: Yeon-jun Kim, Mok-wol Park, Art song, Lyricism, Cultural Fusion, Creative imagination, Fusion

참고문헌

- 권송택. “김연준 가곡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기법.” 『김연준 가곡의 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13-33, 23-24, 25, 45-46.
- 금동철. “박목월 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자연관 연구.” 『우리말 글』 32 (2004), 238.
- 김연준. 『백남 김연준 자서전 사랑의 실천』. 서울: 청문각, 1999.
- 김용범. “무형문화자산의 문화적 활용과 상품화 전략,” 『문화정책논총』 21 (2009), 216-220.
- 김용환. “‘한국 최초의 예술가곡’에 관한 소고,” 『음악과 민족』 20 (2000), 272-276.
- 나진규. 『애창 한국 가곡 해설』. 서울: 도서출판 태성, 2003.
- 남진우. “상상된 자연, 무갈등의 평온과 소외의식의 거리.” 『한국근대문학연구』 19 (2009), 292.
- 박목월. 『박목월 시전집』. 서울: 서문당, 1994.
- 박목월/이민호 엮음. 『박목월 시전집』. 서울: 민음사, 2003.
- 박목월/박두진/조지훈. 『청록집』. 서울: 삼중당, 1980.
- 박승준. “박목월 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시의식.” 『배화논단』 18 (1999), 33.
- 박현수. “초기시의 기묘한 풍경과 이미지의 존재론.” 『박목월』. 서울: 새미, 2002, 250.
- 엄선애. “시에는 울림을, 음악에는 말함음-빌헬름 뮐러와 프란츠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및 제5곡 ‘보리수’의 해석.” 『독일언어문학』 15 (2001), 387-388, 392.
- 유희. “박목월 시의 음악성 연구.” 『청람어문교육』 18/1 (1997), 203.
- 이승원. “시의 본질과 특성에 관한 소고.” 『한양어문』 13 (1995), 523.
- 이흥경. “시와 음악의 이중주.” 『독일어문학』 48 (2010), 86.
- 장견실. “김연준의 연가곡을 통해 본 그의 음악세계.” 『김연준 가곡의 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116.
- 지형주. “김연준의 성가곡.” 『김연준 가곡의 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147.
- 한광규. “박목월 시의 향토성.” 『한민족문화연구』 (1999), 33, 40-42.
- 한예찬. “박목월 시에 나타난 동심 지향성.” 『동화와 번역』 12 (2006), 293-296.

오타베 다네히사(小田部胤久). 김일립 옮김. 『예술의 역설』. 서울: 돌베개, 2011.

국문초록:

박목월 서정시의 김연준 예술가곡화 연구
- 문화융합의 원리를 중심으로 -

송 화 · 김용범

본 논문은 작곡가 김연준의 가곡으로 수용된 시인 박목월의 시문학에 관한 연구이다. 두 예술가는 각 자의 분야에서 독보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이며, 이들에 대한 연구는 음악과 문학이라는 별개의 장르에서 따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기존의 김연준 가곡과 박목월 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예술가곡’의 장르적 속성과 박목월 시의 유형과 시의 확장성에서 나타난 소통의 방법을 문화융합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기존에 연구되었던 작곡가 백남 김연준의 가곡적 특성과 시인 목월 박영종의 시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김연준의 작품에서는 반복적으로 드러난 음악 형식 속에서 낭만주의적 상징성과 자연친화적 서정성, 그리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인생철학이라는 특성을 찾을 수가 있었다. 박목월의 작품에서는 동심의 눈으로 발견된 순수성, 한국어로 표현하는 향토적 서정성과 기독교적 성찰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특성을 바탕으로 음악과 문학이라는 서로 다른 예술 장르가 어떻게 교감, 융합하는지 『김연준 가곡 330곡 선곡집』을 통해 살펴보았다. 김연준과 박목월 작품의 서정성이라는 공통된 특성은 필연적으로 융합되어 23곡의 가곡을 만들어냈으며, 예술가곡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 하였다. 김연준과 박목월이 만들어낸 예술가곡은 문화콘텐츠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문화융합의 원리를 보여주었다. 이 원리는 본연의 속성을 간직한 두 가지의 작품이 만나 하나의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킨 것으로 ‘퓨전’이라는 문화융합 형태를 보여주었다.

또한, 박목월은 예술가곡을 위해 새로운 작품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아, 이미 문자로 전달되는 시와 음악과의 결합으로 소통하는 시가 다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음악본연의 무드를 지닌 김연준의 가곡과 박목월의 시와 융합되어 조화를 이뤄 공감영역을 넓혀 시의 확장성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A Study of Lyric Poetry of Mok-wol Park Accepted by Art Songs of Yeon-jun Kim-Focused on the Principle of Cultural Fusion

Song Hwa • Yong-bum Kim

This paper is the studying of poetry of Mok-wol Park accepted by songs of Yeon-jun Kim. Mok-wol Park and Yeon-jun Km are artists who have dominant positions in the field of them. And the studying of them have been conducted separately in different genres which music and literature. But this paper has tried to study genre ever property of 'Art song' and a type and expandability of poems be based on the existing study about songs of Yeon-jun Kim and poems of Mok-wol Park in the cultural fusion aspect.

Above all, we looked into the existing study about characteristics of Yeon-jun Kim's songs and Mok-wol Park's poems. In the works of Yeon-jun Kim, it found characteristics which are romantic symbolism, environment-friendly lyricism, the philosophy based on Christianity in repetitive music formats. Also, the works of Mok-wol Park have characteristics like purity discovered by eyes of the child's mind, pastoral lyricism and Christian reflection.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we have studied sympathetic, harmony of different art genres which music and literature through 『Yeon-jun Kim's 330 songs』. Common lyricism of works of Yeon-jun Kim and Mok-wol Park fused inevitably and resulted in 23 songs. Also, it opened up new genre called 'the art song.' The art song made by Yeon-jun Kim and Mok-wol Park signify a principle of cultural convergence which applied to cultural contents. This principle shows a type of cultural convergence called 'Fusion' that two original works had natural characteristics make a new one.

Also, Mok-wol Park made new works planned and purposely only for art music because he already recognized that two poems, one is delivered as a character, the other is combined with music are different. So, we confirmed that harmony of Yeon-jun Kim's songs had mood of original

music and Mok-wol Park's poems contribute to poetry extensibility through widen empathize.

[논문 투고일: 2012. 02. 29]

[논문 심사일: 2012. 03. 27]

[게재 확정일: 2012. 04. 01]